

NEO-PI-R을 이용한 소양인, 소음인 및 태음인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조창현 · 조윤성 · 이상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내과학교실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o-yang, So-eum and Tae-eum Using NEO-PI-R

Chang Hyun Cho, Yoon Soong Cho, Sang Kwan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sonality traits in three constitutional types, So-yang, So-eum and Tae-eum, using NEO-PI-R. The Questionnaire for QSCC II and NEO-PI-R Korean version were completed by 155 university students (108 males and 47 females). Analysis of difference among groups was conducted by ANOVA and followed by Scheffe test. Significant differences of personality among three constitutional types were revealed with respect to NEO-PI-R scales such as Extroversion and Openness in the big five factors and Anxiety, Angry, Gregariousness, Assertiveness, Excitement Seeking, positive Emotion, Fantasy, Feeling, Action, Values, Modest and Deliberation in subtypes of the big five factors. The score of So-yang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o-eum in Extroversion, Openness, Angry, Gregariousness, Assertiveness, Excitement Seeking, Positive Emotion, Fantasy, Action and Values. The score of So-yang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ae-eum in Extroversion, Openness, Gregariousness, Assertiveness, Excitement Seeking, Feeling, Action and Values. The score of So-eum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o-yang in Anxiety, Modest and Deliber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EO-PI-R is helpful to determine constitution type, especially in the level of personality.

Key words : QSCC II, NEO-PI-R, Personality trait, Three constitutional types

서 론

사상의학은 이제마가 1894년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크게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에 따른 생리와 병리, 치료, 양생을 연구하여 만들어 낸 독창적인 체질의학이다¹⁾. 사상의학을 임상에 응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체질 감별이라 할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을 보면, 「性命論」에 서술되어 있는 체질의 형성원리부터 喜怒哀樂과 체질의 관계, 사상인과 장부의 관계, 장부의 생성원리, 사상인의 질병 생성 이치 등을 알고, 정신과 육체가 일치되어 나타내는 전체적인 象을 면밀히 관찰해야만 정확

하게 체질을 감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체질 감별의 중요한 점은 대체로 육체적 체형과 정신적 기질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²⁾.

객관적 체질감별을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속성을 모두 반영한 사상체질분류검사 I (QSCC I), 사상체질분류검사 II (QSCC II)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³⁾ 등의 사상체질분류검사 I (QSCC I)의 준거 타당화 연구, 김⁴⁾ 등의 사상체질분류검사 II (QSCC II)의 표준화 연구, 김⁵⁾ 등의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사상체질분류검사 II (QSCC II)의 연구, 이⁶⁾ 등의 사상체질분류 검사 II (QSCC II)의 Upgrade 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정신적 기질과 관련된 체질별 성격 특성 연구 중에는 박¹⁾ 등의 NEO-PI-R를 사용하여 체질별 성격을 파악한 연구와 이⁷⁾ 등의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체질별 성격특성의 생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등이 있다.

박¹⁾ 등의 연구는 피험자의 체질별 비율이 태양인 및 미분류 18%, 소양인 28%, 소음인 30%, 태음인 24%였는데 『동의수세보

* 교신저자 : 이상관,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E-mail : sklee@wonkwang.ac.kr, · Tel : 062-670-6407

· 접수 : 2005/09/23 · 수정 : 2005/10/28 · 채택 : 2005/11/29

원』에서는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絶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⁸⁾”라고 하여 태양인은 만 명당 3-10 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저자는 『동의수세보원』에 언급된 임상 조건과 유사한 연구를 위해 체질 분류 시 태양인을 제외하고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의 성격 특성을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피험자는 155명(여자 47명, 남자 108명)의 동일 학년의 대학생이며, 52명은 설문지 작성 후 오류로 인해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2. 연구도구

1) NEO-PI-R(성격특성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는 NEO-PI의 개정판 NEO-PI-R(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로서, 신경증(N), 외향성(E), 개방성(O), 친화성(A), 성실성(C) 등의 5개 요인과 각 요인별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이다(Table 1).

Table 1. Big 5 Factors and 30 Subtypes of NEO-PI-R

Big 5 Factors	Subtypes of Big 5 Factor					
신경증 (N: Neuroticism)	불안 (N1: Anxiety)	적대감 (N2: Angry)	우울(N3: Depression)	자의식(N4: Self-Consciousness)	충동성(N5: Impulsiveness)	심약성(N6: Vulnerability)
외향성 (E: Extraversion)	온정(E1: Warmth)	사교성(E2: Gregariousness)	주장(E3: Assertiveness)	활동성(E4: Activity)	자극추구(E5: Excitement seeking)	긍정적 정서(E6: Positive Emotion)
개방성 (O: Openness)	상상(O1: Fantasy)	감미성(O2: Aesthesis)	감정(O3: Feeling)	행동(O4: Action)	사고(O5: Idea)	가치(O6: Values)
친화성 (A: Agreeableness)	신뢰성(A1: Trust)	솔직성(A2: Straightforwardness)	이타성(A3: Altruism)	순응성(A4: Compliance)	겸손(A5: Modest)	동정(A6: Tender-Mindedness)
성실성 (C: Conscientiousness)	유능감(C1: Competence)	정연성(C2: Order)	종실성(C3: Duitfulness)	성취갈망(C4: Achievement Striving)	자기규제(C5: Self-Discipline)	신중성(C6: Deliberation)

자기보고양식과 관찰자 보고양식이 있는데, 본 검사에서는 자기 보고 양식을 사용하였다. 총 240문항으로 5요인별 48 문항, 개별 하위요인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반응 양식은 5단계 평정으로, 피험자들은 문항 내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검사점수는 각 하위요인의 경우 8개 문항점수의 합으로 결정하며, 5요인은 각 6개 하위요인 점수들의 합으로 계산된다. 본 검사는 안창규와 체준호⁹⁾가 우리 문화에 익숙하도록 언어적 표현을 번안하여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는 .74~.91 범위에 있었고, 자의식(N4), 행동(O4), 가치(O6), 순응(A4)등의 하위척도는 .40~.60 범위의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 나머지 하위척도는 .64~.82의 신뢰도를 보였다^{9),10)}(Table 2).

Table 2. Reliability of Big 5 Factors in NEO-PI-R

Big 5 Factors	Subtypes of Big 5 Factor					
N(.90)	N1(.68)	N2(.72)	N3(.66)	N4(.51)	N5(.62)	N6(.64)
E(.84)	E1(.62)	E2(.68)	E3(.56)	E4(.43)	E5(.59)	E6(.62)
O(.79)	O1(.56)	O2(.72)	O3(.51)	O4(.47)	O5(.63)	O6(.41)
A(.81)	A1(.67)	A2(.54)	A3(.63)	A4(.55)	A5(.54)	A6(.61)
C(.88)	C1(.67)	C2(.56)	C3(.52)	C4(.56)	C5(.51)	C6(.63)

() : (Cronbach α) N: Neuroticism, E: Extraversion, O: Openness, A: Agreeableness, C: Conscientiousness, N1: Anxiety, N2: Angry, N3: Depression, N4: Self-Consciousness N5: Impulsiveness, N6: Vulnerability, E1: Warmth, E2: Gregariousness, E3: Assertiveness, E4: Activity, E5: Excitement Seeking, E6: Positive Emotion, O1: Fantasy, O2: Aesthesis, O3: Feeling, O4: Action, O5: Idea, O6: Values, A1: Trust, A2: Straightforwardness, A3: Altruism, A4: Compliance, A5: Modest, A6: Tender-Mindedness, C1: Competence, C2: Order, C3: Duitfulness, C4: Achievement Striving, C5: Self-Discipline, C6: Deliberation

2) QSCCⅡ(사상체질검사)

이 검사는 121개의 자가 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점수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점수는 세 체질 (소양, 소음, 태음) 중 하나를 나타낸다. 소양, 소음, 태음 척도의 각각의 신뢰도는 $\alpha=0.5708$, $\alpha=0.6319$, $\alpha=0.5922$ 이다.

3. 자료 처리방법

통계 분석은 Window용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성별 빈도 분석을 위해 χ^2 test를 시행하였고 NEO-PI-R의 5요인과 각각의 하위요인을 통한 체질별 성격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시행하였으며, 변량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 post hoc test를 시행하였다. $p<0.05$ 인 경우를 유의하게 인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성별 및 체질별 빈도 및 비율

성별에 따른 각 체질별 분포를 보면 전체 155명 중 남녀는 각각 108명, 47명이었으며, 소음인은 남자 47명, 여자 20명, 소양인은 남자 28명, 여자 18명, 태음인은 남자33명, 여자 9명이었다. 체질별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소음인 47명(30.3%), 태음인 33명(21.3%), 소양인 28명(18.1%) 순이었고, 여자는 소음인 20명(12.9%), 소양인 18명(11.6%), 태음인 9명(5.8%) 순이었다. χ^2 test 후 남녀 간 빈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Frequency and Ratio of Sex according to Constitutional Three Types

		Constitutional Type			Total
		So-yang(少陽)	So-eum(少陰)	Tae-eum(太陰)	
Male	Frequency	28	47	33	108
	Ratio	18.1%	30.3%	21.3%	69.7%
Female	Frequency	18	20	9	47
	Ratio	11.6%	12.9%	5.8%	30.3%
Total	Frequency	46	67	42	155
	Ratio	29.7%	43.2%	27.1%	100.0%

2.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특성의 각 요인별 분석

1) 신경증(N) 요인 및 신경증 하위요인(N1-N6)

사상체질에 따라 신경증(N: Neuroticism) 및 이의 하위요인(N1-N6)의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신경증(N), 우울(N3), 자

의식(N4), 충동(N5), 심약(N6)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불안(N1), 분노(N2)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된 요인의 post-hoc 결과, 불안(N1)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분노(N2)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Table 4. The Scores of Neuroticism and Subtypes among Three Constitutional Types

	Three Constitutional Types			MS	F(2,101)
	So-yang	So-eum	Tae-eum		
N	119.42±3.24	117.93±2.31	115.89±3.16	95.78	F(2,101) = .336
N1	20.13±0.74	22.63±0.54	21.08±0.72	53.29	F(2,101) = 3.523*
N2	21.17±0.91	18.23±0.58	18.38±0.86	76.07	F(2,101) = 3.781*
N3	19.83±0.87	21.26±0.64	20.14±0.85	20.04	F(2,101) = .960
N4	21.42±0.72	20.79±0.46	21.05±0.63	3.04	F(2,101) = .258
N5	21.63±0.89	18.95±0.72	19.89±0.71	54.97	F(2,101) = 2.688
N6	15.25±0.71	16.07±0.50	15.35±0.58	7.33	F(2,101) = .625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 p<.05 **; p<.01. N: Neuroticism, N1: Anxiety, N2: Angry, N3: Depression, N4: Self-Consciousness, N5: Impulsiveness, N6: Vulnerability

2) 외향성(E) 요인 및 외향성 하위요인

사상체질에 따라 외향성(E: Extraversion) 및 이의 하위요인(E1-E6)의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온정(E1), 활력(E4)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외향성(E), 사교(E2), 주장(E3), 자극추구(E5), 긍정적 정서(E6)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된 요인의 post-hoc 결과, 외향성(E), 사교(E2), 주장(E3), 자극추구(E5), 긍정적 정서(E6) 등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외향성(E), 사교(E2), 주장(E3), 자극추구(E5) 등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Table 5. The Scores of Extraversion and Subtypes among Three Constitutional Types

	Three Constitutional Types			MS	F(2,101)
	So-yang	So-eum	Tae-eum		
E	143.54±2.92	126.05±2.33	129.97±3.31	2422.56	F(2,101) = 8.407**
E1	27.58±0.84	25.44±0.60	26.32±0.80	35.48	F(2,101) = 1.895
E2	21.33±0.73	17.07±0.61	17.68±0.94	150.12	F(2,101) = 7.058**
E3	20.88±0.71	17.02±0.59	19.41±0.67	126.26	F(2,101) = 8.486**
E4	23.13±0.70	21.49±0.43	22.05±0.50	20.63	F(2,101) = .112
E5	27.17±0.75	24.37±0.63	23.46±0.60	103.79	F(2,101) = 6.912*
E6	23.46±0.74	20.65±0.62	21.05±0.76	65.02	F(2,101) = 3.719*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 p<.05 **; p<.01. E: Extraversion, E1: Warmth, E2: Gregariousness, E3: Assertiveness, E4: Activity E5: Excitement Seeking, E6: Positive Emotion

3) 개방성(O) 요인 및 개방성 하위요인(O1-O6)

사상체질에 따라 개방성(O: Openness) 및 이의 하위요인(O1-O6)의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심미(O2), 사교(O5)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개방성(O), 상상(O1), 감정(O3),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된 요인의 post-hoc 결과, 개방성(O), 상상(O1),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개방성(O), 감정(O3),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4) 친화성(A) 요인 및 친화성 하위요인(A1-A6)

사상체질에 따라 정서적 친화성(A: Agreeableness) 및 이의 하위요인(A1-A6)의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정서적 친화성

(A), 신뢰(A1), 솔직(A2), 이타(A3), 순응(A4), 동정(A6)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겸손(A5)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된 요인의 post-hoc 결과 겸손(A5)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7).

Table 6. The Scores of Openness and Subtypes among Three Constitutional Types

	Three Constitutional Types			MS	F(2,101)
	So-yang	So-eum	Tae-eum		
O	134.42±3.62	120.84±2.37	120.95±2.73	1689.70	F(2,101) = 6.255*
O1	21.38±0.94	17.59±0.79	18.30±0.84	116.90	F(2,101) = 4.630*
O2	22.42±1.16	21.19±0.62	21.00±0.81	16.35	F(2,101) = 0.713
O3	25.58±0.75	23.60±0.56	22.57±0.62	66.48	F(2,101) = 4.826*
O4	19.08±0.80	14.26±0.58	15.38±0.76	183.87	F(2,101) = 10.767**
O5	21.29±0.97	21.65±0.65	21.32±0.73	1.46	F(2,101) = .074
O6	24.67±0.78	22.58±0.45	22.38±0.57	44.25	F(2,101) = 3.953*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 p<.05 **; p<.01. O: Openness, O1: Fantasy, O2: Aesthesia, O3: Feeling, O4: Action, O5: Idea, O6: Values

Table 7. The Scores of Agreeableness and Subtypes among Three Constitutional Types

	Three Constitutional Types			MS	F(2,101)
	So-yang	So-eum	Tae-eum		
A	118.04±2.08	121.63±2.12	120.75±2.20	100.99	F(2,101) = .608
A1	22.13±0.69	21.09±0.62	21.24±0.65	8.78	F(2,101) = .586
A2	16.00±0.75	17.44±0.60	16.86±0.82	16.06	F(2,101) = .887
A3	21.79±0.57	22.28±0.58	22.81±0.57	7.78	F(2,101) = .637
A4	16.63±0.84	17.72±0.59	18.27±0.70	19.82	F(2,101) = 1.196
A5	15.25±0.86	18.00±0.62	16.89±0.72	58.42	F(2,101) = 3.289*
A6	26.25±0.65	25.09±0.54	24.95±0.62	14.07	F(2,101) = 1.124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 p<.05 **; p<.01. A: Agreeableness, A1: Trust, A2: Straightforwardness, A3: Altruism, A4: Compliance, A5: Modest, A6: Tender-Mindedness

5) 성실성(C) 요인 및 성실성의 하위요인(C1-C6)

사상체질에 따라 성실성(C: Conscientiousness) 및 이의 하위요인(C1-C6)의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성실성(C), 유능감(C1), 정연성(C2), 충실성(C), 성취갈망(C4), 자기규제(C5)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신중성(C6)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집단 간 차이가 인정된 요인의 post-hoc 결과 신중성(C6)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8).

Table 8. The Scores of Conscientiousness and Subtypes among Three Constitutional Types

	Three Constitutional Types			MS	F(2,101)
	So-yang	So-eum	Tae-eum		
C	124.17±3.68	133.00±2.56	129.65±3.12	601.35	F(2,101) = 1.845
C1	21.58±0.93	20.95±0.56	21.11±0.68	3.12	F(2,101) = .189
C2	19.04±0.83	20.44±1.01	19.46±0.83	17.86	F(2,101) = .575
C3	26.29±0.89	28.53±0.47	27.92±0.61	39.17	F(2,101) = 2.978
C4	20.67±0.83	22.28±0.55	21.68±0.68	24.61	F(2,101) = 1.609
C5	17.46±0.95	18.49±0.66	18.95±1.18	16.31	F(2,101) = .527
C6	19.13±0.79	22.30±0.50	21.14±0.75	77.76	F(2,101) = 5.041*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 p<.05 **; p<.01. C: Conscientiousness, C1: Competence, C2: Order, C3: Dullfulness, C4: Achievement Striving, C5: Self-Discipline, C6: Deliberation

고찰

성격특성이란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추론되는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성이다. 성격특성이론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은 몇 개이며,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의 성격 특성 연구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의 차원이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요인은 개인들 간의 차이 뿐 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¹¹⁻¹⁸⁾. '5요인 구조설 (Big five structure/ five factor Model)'은 인간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5개이며, 이들 요인은 인간 행동을 예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5요인은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 (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등으로 구성되며, 이 모델을 근간으로 NEO 인성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가 McCrea와 Costa에 의해 개발되었고¹⁰⁾, 이후 친화성과 성실성의 하위요인들이 포함되어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이 개발되었다. NEO-PI-R은 5요인과 30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성격특성과 구체적인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독특한 개인행동의 예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¹⁸⁻²⁰⁾.

본 연구에서는 NEO-PI-R을 이용하여, 『동의수세보원』에 언급된 임상조건과 유사한 소양, 소음, 태음 각 체질별 성격 특성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5요인 중 외향성(E)과 개방성(O), 하위요인 중 분노(N2), 사고(E2), 주장(E3), 자극추구(E5), 긍정적 정서(E6), 상상(O1),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하위요인 불안(N1), 겸손(A5), 신중성(C6) 등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5요인 중 외향성(E)과 개방성(O), 하위요인 중 사고(E2), 주장(E3), 자극추구(E5), 감정(O3),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5요인 중 개방성(O), 하위요인 중 분노(N2), 상상(O1),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5요인 중 개방성(O), 하위요인 중 감정(O3), 행동(O4), 가치(O6) 등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겸손(A5)은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박¹¹⁾ 등의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5요인 중 개방성(O), 하위요인 중 분노(N2), 상상(O1), 감정(O3), 행동(O4), 가치(O6), 겸손(A5)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하위요인 중 자의식(N4), 온정(E1), 활동(E4), 신뢰(A1)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박¹¹⁾ 등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자의식(N4)에서는 소음인이 태양, 소양, 태음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온정(E1), 활동(E4), 신뢰(A1) 등에서는 소음인이 태양, 소양,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태양인 분류의 유무, post hoc 방법의 차이, 실험상의 오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방성(O) 및 그 하위요인인 상상(O1), 감정(O3), 행동(O4), 가치(O6) 등의 경우는 post-hoc 방법의 차이나 실험상의 오류보다는 태양인 분류의 유무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9). 그러므로 태양인을 분류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방성(O) 및 개방성 하위 요인과의 연구가 필요 하겠다.

Table 9.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ark's and Lee's Research

Big Five Factors and Subtypes of Big Five Factors	Park's*	Lee's**
Openness(O)	no significant	So-yang > So-eum
Angry(N2)	no significant	So-yang > So-eum
Self-Consciousness(N4)	So-eum > The others	no significant
Anxiety(E1)	So-eum < The others	no significant
Activity(E4)	So-eum < The others	no significant
Fantasy(O1)	no significant	So-yang > So-eum
Feeling(O3)	no significant	So-yang > So-eum, So-yang > Tae-eum
Action(O4)	no significant	So-yang > So-eum, So-yang > Tae-eum
Value(O6)	no significant	So-yang > Tae-eum
Trust(A1)	So-eum < The others	no significant
Modest(A5)	no significant	So-eum > So-yang

*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II & NEO-PI-R, 2000. **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o-yang, So-eum and Tae-eum using NEO-PI-R, 2005

본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E)은 사고성, 적극성, 열성적 태도나 낙천적 태도, 진취성들을 나타내고, 개방성(O)은 독자적 판단, 풍풍한 상상, 심미적 감수성, 내적 감정에 대한 민감성, 변화에 대한 선호,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다. 분노(N2)는 좌절, 적의, 비통 등을 경험하고 있는 정도를, 사고(E2)는 타인과의 교제 선호도를, 주장(E3)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와 사회적 지배력을, 자극추구(E5)는 자극과 흥분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긍정적 정서(E6)는 기쁨, 행복, 사랑, 흥분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상상(O1)은 풍부한 상상력을 나타내며, 행동(O4)은 다양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가치(O6)는 기존 가치와 다른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낸다. 불안(N1)은 특정대상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막연한 걱정, 불안, 긴장 등을 나타내며 겸손(A5)은 겸손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신중성(C6)은 행동하기에 앞서 주의 깊게 생각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감정(O3)은 내면의 감정의 깊이와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사고성, 적극성, 진취성 등이 뛰어나고 상상력, 감수성, 민감성이 풍부하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다. 또 쉽게 좌절하고 적의를 느끼며 비통해하고, 타인과의 교제를 선호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영향력, 지배력을 가지길 원하며, 새로운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든 좀 더 긍정적 사고를 한다. 또 좀 더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며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쉽게 받아들인다. 소음인은 소양인에 비해 막연한 걱정, 불안, 긴장을 더 많이 하며 겸손하고 표면에 나서길 싫어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주의 깊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많다. 소양인은 태음인에 비해 사고성, 적극성, 진취성 등이 뛰어나고, 상상력, 감수성, 민감성이 풍부하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다. 특히 타인과의 교제를 선호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영향력, 지배력을 가지길 원하며, 새로운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또한 감정의 폭이 넓고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쉽게 받아들인다.

이상의 결과와 해석은 『동의수세보원』의 “少陽人 長於剛武而材幹能於事務, 剽銳好勇, 恒有懼心, 恒械哀心怒心,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脾合交遇”, “少陰人 長於端重而 材幹能於黨與

體任自然而 簡易少巧, 恒有不安定之心, 恒慊喜心樂心,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腎定居處”, “太陰人 長於成就而 材幹能於居處起居有儀而 修整正大, 恒有怯心, 恒慊樂心喜心,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肝立黨與⁸⁾” 등의 내용과 유사하게 해석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각 체질의 정신적 기질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NEO-PI-R를 이용해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의 성격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요인 중 외향성(E), 개방성(O) 2개 요인과 하위요인 중 분노(N2), 사고(E2), 주장(E3), 자극추구(E5), 긍정적 정서(E6), 상상(O1), 행동(O4), 가치(O6) 등의 8개 요인에서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하위요인 중 불안(N1), 겸손(A5), 신중성(C6) 등의 3개 요인에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5요인 중 외향성(E), 개방성(O) 2개 요인과 하위요인 중 사고(E2), 주장(E3), 자극추구(E5), 감정(O3), 행동(O4), 가치(O6) 등의 6개 요인에서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감사의 말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2004)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박효인, 이건인. 사상체질분류검사와 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2):104-122, 2000.
2.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67-80, 1993.
3.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 I (QSCC I)의 준거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87-104, 1993.
4.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 II(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187-246, 1996.
5.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김종화, 정성일, 이현민, 김종원.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사상체질분류검사 II(QSCC II)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6. 이상규, 광창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 검사지 (QSCC II)의 Upgrade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15(1):39-49, 2003.
7. Lee, S.K., Jeong, E.S., Sung, K.K.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Constitutional Types.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6): 1892-1895, 2004
8.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1992.
9. 안창규, 채준호. NEO-PI-R의 한국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443-473, 1997.
10. 정유희. NEO-PI-R상에 나타난 범죄자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 Botwin, M.D., Buss, D.M. Structure of Actreport Data: Is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Recaptu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88-1001, 1989.
12. Golderg, L.R.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41-165, 1981.
13. Goldberg, L.R.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1216-1229, 1990.
14. Digman, J.M., Inouye, J. Futher Specification of The Robust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6-123, 1986.
15. McCrea, R.R., Costa, P.T. Jr.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1985.
16. McCrea, R.R., Costa, P.T. Jr.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1987.
17. Peabody, D., Goldberg, L.R. Some Determinants of Factor Structure from Personality-Trait Descrip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52-567, 1989.
18. 이경임. 한국인의 NEO-PI-R 요인구조와 부적응 집단 프로파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9. Buss, A.H.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 1378-1388, 1989.
20. Mcadams, D.P. The Five-Factor Model in Personality: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60, 329-361, 1992.